

제 1 교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시선모의고사 문제지

# 국어 영역

1회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아무나 좀 답을 알려 주세요**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공통과목** .....
- 독서 .....
- 문학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시선국어연구소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은 전통적인 해석학의 지평을 심화하면서,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단순한 인식 작용으로 제한하지 않고 존재론적 차원으로까지 격상시킨다. 그는 **해석학적 순환**을 철학적 해석학의 중심 개념으로 내세우는데, 이는 올바른 이해를 위해선 부분과 전체에 대한 이해가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해야함을 의미한다. 가다머에게 해석학적 순환은 이해 과정을 보완하며 한층 더 심화해 가는 역동적인 구조인 것이다.

가다머는 이러한 순환 과정을 지지하는 토대가 바로 선입견이라고 주장한다. 계몽주의 사조에서는 모든 선입견을 근거 없는 편견이자 배척 대상이라고 간주했지만, 가다머에게 선입견이란 우리의 이해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사회적 조건 그 자체에 해당한다. 그는 우리가 태어남으로써 숙하게 된 전통과 언어, 문화 속에서 형성된 선입견은 결코 제거되어야 할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새로운 의미 지평을 포착하도록 돕는 ‘존재론적 기반’임을 역설한다. 이를테면 선입견은 인간이 세계를 무(無)에서 출발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정한 역사적 유산 위에서 받들고 사유하도록 만든다. 가다머는 따라서 선입견을 전면 폐기하기보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갱신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계몽주의적 이성 숭배가 지닌 일면적인 낙관에 대해서도 중요한 반론이 된다.

해석자가 자칫 선입견에 사로잡히는 것을 방지하고, 낯선 대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능력을 가다머는 ‘텍트’라고 부른다. 이는 감지력 혹은 균형 감각에 가까운 개념으로, 해석자가 텍스트나 현상과 조우할 때 그에 대하여 알맞게 반응할 수 있는 직관적 역량을 의미한다. 해석자는 축적된 자신의 선입견을 맹목적으로 고수하지 않고, 텍스트의 낯선 목소리를 수용하는 동시에 이를 자신의 역사적·언어적 맥락 안에서 계속해서 변형해 간다. 이 상호작용이 심화될수록 해석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새로운 의미의 층위를 열어젖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는 ㉠ **언어**를 인간의 역사적 유한성과 불가분한 연관 속에서 바라본다. 그는 언어가 특정 시·공간에서 축적된 전통과 구조, 맥락을 그대로 내장하고 있다고 파악하며, 이것이야말로 해석학적 순환을 활성화하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언어에 집적된 역사적 흔적이 우리에게 특정한 전체와 시각을 부여하는 동시에, 텍스트와 해석자가 만나는 지점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렇듯 해석자의 선이해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석자가 감지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해석자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까지 직접 관여하는 ‘존재론적 매개’가 된다.

이와 더불어 가다머는 ㉡ **권위**를 일방적으로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일정 부분 복권한다. 전통적인 권위를 맹종하는 태도는 물론 경계해야 하지만, 모든 권위를 단순한 폭력적 지배 기제이자 부정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권위가 때로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축적된 지혜와 문화적 경험을 함축하고 있을 수 있기에, 해석자는 권위를 무작정 부정하고 거부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현재의 이해 구조 안에서 재맥락

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석학은 이러한 태도를 통해 오랜 전통과 현대의 관점을 서로 대립이 아닌 대화 관계로 이끌어 낸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계에 대한 이해는 일정한 사유의 틀을 활용할 때 더욱 심화될 수 있다.
- ② 대상의 존재에 대한 이해는 해석자의 축적된 경험과 선입견을 활용함으로써 이행된다.
- ③ 전통적 기틀은 존재론적 기반으로써 이성과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의심하고 사유해야 한다.
- ④ 대상과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해 단순한 인식 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⑤ 감지력은 해석자의 선입견이 미처 발휘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

2. ㉠과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불러온 질문들은 해석자의 사회적 조건을 지지한다.
- ② ㉡의 획득은 해석자의 맥락적 상호작용을 강화한다.
- ③ ㉠은 ㉡와 달리 역사적 기틀에 맞추어 재맥락화해야 한다.
- ④ ㉡은 ㉠과 달리 매개적 대상이 아니며, 재맥락화가 요구되는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해석자의 인식 과정에서 고정된 전제로 작용한다.

3. **해석학적 순환**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체에 대한 이해는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② 감지력을 활용하여 기존의 선입견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전체와 부분과의 충돌을 충분한 맥락의 반응을 통해 둘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이다.
- ④ 부분에 대한 통찰은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전체에 대한 이해는 부분의 합을 의미한다.
- ⑤ 개별적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전체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없기에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이해해야 한다.

4. <보기>의 허버마스가 윗글의 가다머에게 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허버마스는 해석자가 특정 맥락에 매몰되지 않도록, 비판적 거리 두기와 합리적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는 해석 과정을 사회 제도와 권력 작용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하며, 언어와 의사소통에 내재된 이념 및 권력 구조가 해석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해 주체가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속하기보단 이념 비판과 합리적 토론을 통해 자기 해석이 속한 구조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① 당신의 역사를 이해 작용의 기반으로 삼는 방식은 비판적 인식의 결여로 해석자의 판단 능력을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 ② 당신의 선입견을 해석의 기반으로 삼는 태도는 해석자가 기존의 구조와 맥락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 ③ 당신의 선입견과 감지력에 대한 설명은 해석자가 새로운 맥락을 도입할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④ 당신의 권력 구조를 지지하는 태도는 권력이 내포한 이데올로기와 비합리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⑤ 당신의 언어가 해석학적 순환을 활성화하는 동력이라는 설명은 언어가 가진 권력 구조의 의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자라는 지상에서 토끼를 만나 토끼를 옹공으로 인도하여 용왕에게 데려간다. 토끼는 간을 뺏길 위기에 놓이자 기지를 발휘한다.

용왕이 듣고 어이없어 꾸짖어 가로되,  
“발칙 당돌하고 **간사**한 요놈, 네 내 말을 들어라 하니, 천지 사이 만물 가운데에 사람으로 금수까지 제 뱃속에 붙은 간을 무슨 수로 꺼내었다 집어넣었다 하겠는고? 요놈 언감생심코 어느 존전이라고 당돌히 무소\*로 아뢰느냐. 그 죄가 만 번 죽어도 남지 못하리라.”

하고, 바삐 **배를 찢고 간을 올리라** 하거늘, 토끼 또한 어이없어 **간장이 질로 녹으며 정신이 아득**하여, 가슴이 막히고 진땀이 바짝바짝 나며 아무리 생각하여도 죽을 수 밖에 없도다.

‘이것이 참 독에 든 쥐요 함정에 든 범이라. 그러하나 **말이나 단단히 한 번 더 하여 보리라.**’

하고 우환 중이라도 혼연한 모양을 가지고 여쭙오되,

“옛말에 일렀으되, 지혜로운 자 천 번 생각하는데 한 번 실수할 때가 있고, 우매한 자가 천 번 생각하는데 한 번 잘할 때가 있다 하였는지라. 이리므로 미친 사람의 말도 성인이 가리어 들으시고 어린이의 말도 귀담아 들으라 하오니, 대왕의 지극히 밝으신 식견으로 세세히 통촉하여 보시옵소서. 만일 소신의

**[A]** 배를 갈랐다가 간이 있으면 다행이어나와 정말 간이 없고 보면 물을 데 없이 누구를 대하여 간을 달라 하오리까? 후회 막급 되실 터이오니, 염라대왕의 아들이요 황건역사의 동생인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황천길을 무슨 수로 면하오며, 또한 소신의 몸에 분명한 표가 하나 있사오니 바라건대 밝히 살피사 의심을 풀으시옵소서.”

용왕이 **듣고** 가로되,

“이 요망한 놈, 네 무슨 **표가 있던 말이나?**”

토끼 아뢰되,

“세상 만물의 생긴 것이 거의 다 같사오나 오직 소신은 밀구멍 셋이오니 어찌 유(類)와 다른 **표**가 아니오리까?”

왕이 가로되,

“네 말이 더욱 간사하도다. 어찌 밀구멍 셋이 될 리가 있느냐?”

토끼 가로되,

“그러하시면 소신의 밀구멍의 내력을 들어 보시옵소서. 하늘이 자시(子時)에 열려서 하늘 되고, 땅이 축시(丑時)에 열려 땅이 되고, 사람이 인시(寅時)에 나서 사람 되고, 토끼가 묘시에 나서 토끼 되었으니, 그 근본을 미루어 보면

**[B]** 생물을 밟지 않는 저 기린도 사물의 근본이 내 몸이요, 주려도 곡식을 짚어 먹지 아니하는 봉황도 지내온 내력이 내 몸이라. 천지간 만물 중에 오직 토처사가 본방\*이라. 이리므로 옥황상제께옵서 순순히 명하옵시되 토처사는 나는 새 중에 조상이요 기는 짐승 중에 본방이라. 만물 중에 제일 친분이 특별하니, 신체 만들기를 별도로 하여 표를 주자 하시고, 일월성신 세 가지 빛을 응하며 정직하고 굳세고 부드러운 세 가지 덕을 겸하여 세 구멍을 잡지 하셨사오니, 보시면 자연 통촉하시리이다.”

용왕이 나졸을 명하여 부정이나 거짓을 캐어내라 하니 과연

세 구명 분명한지라. 왕이 **의혹**하여 **주저**하거늘, 토끼 여쭙오되,  
 “대왕이 어찌 이다지 의심하시나이까? 소신 같은 목숨은 하루  
 천만 명이 죽사와도 관계가 없삽거니와, 대왕은 만승의 귀하신  
 옥체로 동방의 성군이시라 경중(輕重)이 판이하오니, 만일 불행  
 하시면 천리강토와 구중궁궐을 뉘에게 전하시며, 종묘사직과  
 억조창생을 뉘에게 미루시렵나이까? 소신의 간을 아무쪼록  
 갖다가 쓰시면 환후가 즉시 평복되실 것이오, 평복되시면  
 대왕은 염려 없이 만세나 향수하실 것이니, 어언간 소신은  
 일등공신이 아니되업나이까? 이러한 좋은 일에 어찌 일호나  
 기망하여 아뢰을 가망이 있사오리까?”

하며 첩첩이구로 **발림**하며 용왕을 **폭신** **살아내**는데, 언사가  
 또한 **절절이 온당한**지라. 이 고지식한 용왕은 폭 곧이 듣고 자  
 기 생각에 헤아리되,

‘만일 제 **말**과 같을진대 저 죽은 후에 누구에게 물을손가?  
 차라리 잘 **달래**어 간을 얻음만 같지 못하다.’

하고, 토끼를 궁중으로 불러 올려 상좌에 앉히고 공경하여 가로되,  
 “과인의 망녕됨을 허물치 말라.”

하니, 토끼가 무릎을 짝 쓰러뜨리고 단정히 앉아 공손히 대답  
 하여 가로되,

“그는 다 예사올시다. 불우의 환과 낙미의 액을 성현도 면치  
 못하거든 하물며 소신 같은 것이야 일러 무엇하오리까?  
 그러하오니, 별주부의 자세치 못하고 충성치 못함이 가없  
 나이다.”

문득 한 신하가 출판주하여 가로되,

[C] “신은 듣사오니 옛글에 일렀으되, 하늘이 주시는 것을 받  
 지 아니하면 도리어 그 **양화\***를 받는다 하오니, 토끼 본시  
 간사한 짐승이라. 호지부지하다가는 잃어 버릴 염려가 있  
 을 듯하오니, 원컨대 대왕은 잃어 버리지 마옵시고 어서  
 급히 잡아 간을 내어 지극히 귀중하신 옥체를 보중케 하옵  
 소서.”

하거늘, 모두 보니 이는 수천 년 묵은 거북이니 별호는 **귀위선생**  
 이러니, 왕이 크게 노하여 꾸짖어 가로되,

“토쳐사는 충효가 겸전한 자이라. 어찌 **허언**이 있으리오. 너는  
 다시 잔말 말고 물러 있거라.”

하시거늘, 귀위선생이 무릎을 꿇고 물러나와 탄식을 마지 아니하더라.

- 작자 미상, 「토끼전」 -

\* 무소: 일을 거짓으로 꾸며 관청에 고소하는 것

\* 본방: 본국을 의미함.

\* 양화: 지은 죄의 양값으로 받는 재앙

5.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인물만을 등장시켜 인물의 갈등을 부각하고 서사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을 전환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회상을 통해 두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여서 특정 인물의 언변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일관되게 사건을 풀어감으로써 인물의 교활함을 강조하고 있다.

6. ‘용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표’에 대한 토끼의 말을 의심하고 그 진위를 밝히기 위해 나줄에게 토끼를 살피라고 명한다.
- ② 토끼를 ‘간사’하다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죄를 묻고자 한다.
- ③ 토끼의 말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의혹’을 가지고 ‘주저’한다.
- ④ 토끼의 ‘발림’을 고지식하게 곧이들은 후 ‘귀위선생’의 충언을 일축하며 꾸짖는다.
- ⑤ 토끼의 ‘말’이 맞을 경우에 일어날 뒷일을 걱정하며 토끼를 ‘달래’고자 한다.

7.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대비되는 두 종류의 인물을 예로 들며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② [B]에서 토끼는 상대방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당하며 의심받자, 자신의 내력을 설명하여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고 있다.
- ③ [B]에서 토끼는 다른 동물들과 자신의 차이점을 드러내어 상대를 설득하고 있고, [A]는 자신을 불신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④ [C]에서 토끼는 성현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고, 신하는 인물의 성격을 이유로 들어서 상대를 추구하고 있다.
- ⑤ [A]에서 인물은 초월적 존재를 예로 들어 상대를 회유하고 있고, [C]에서 신하는 상대방에게 생길 문제를 이유로 들어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토끼전」은 우화의 형식을 빌려 권력층을 비판하고 있다. 「토끼전」에서 용왕은 백성을 갈취하여 자신의 안위를 보전하고자 하는 부도덕하며 무능력한 권력층의 면모를 드러낸다. 한편, 토끼는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기지를 발휘하여 돌파하는 지혜로운 백성의 면모를 드러낸다. 「토끼전」은 이러한 토끼에게 속아넘어가는 용왕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권력층을 비판하고 지혜롭고 주체적인 백성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용왕이 토끼의 ‘배를 찢고 간을 올리라’고 하는 것에서, 백성을 갈취하여 자신의 안위를 보전하고자 하는 권력층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토끼가 ‘간장이 절로 녹으며 정신이 아득’해지나 ‘말이나 단단히 한 번 더 하’는 것에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백성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 ③ 용왕이 토끼의 말을 ‘듣고’ 토끼에게 ‘무슨 표가 있단 말이나’며 의심하는 것에서, 공공연한 사실을 의심하는 무능력한 권력층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용왕이 토끼가 ‘허언’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귀위선생’을 꾸짖는 것에서, 지혜로운 백성에게 속아넘어간 무능력한 권력층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 ⑤ 토끼가 ‘절절이 온당한’ 언사를 통하여 용왕을 ‘폭신 삶아내는’ 것에서, 자신의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돌파하는 지혜로운 백성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